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비교 - 5·6학년을 중심으로 -

유 문 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f Students and Teacher's Gender Equality Perception in Elementary Schools

Moon-Sook Yoo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Objectives: Today, there are no differences in opportunities between genders to enter the school, but unequal education is still happening because of paternalism. Moreover, teachers are not prepared enough to teacher gender equality to their students.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tudents and their teachers regarding gender equalit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ir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Methods: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is based on the Korean Gender Equalitarianism Scale for adult and adolescents published by the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and was used to assess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The subjects were 594 students enrolled in 5th and 6th grades and 110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 1 to May 30, 2004.

Results: Teachers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in the section of school life than students. However, students had lower scores in home and social life. The fe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male ones and students who learned sexual education from father higher scores than those who didn't.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level of studying by male and female students about sex education. Teachers' gender equality perception would affect on student's gender equality perception, so they must be educated well before they teach to their students as well as their parents.

Key Words: gender equality perception, elementary school, sex education

서 론

교신저자: 유문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전화번호: 031-219-5149, 팩스번호: 031-219-5094
E-mail: msyu@ajou.ac.kr
원고접수: 2005년 7월 20일, 원고체택: 2005년 9월 14일

오늘날 학교교육은 접근기회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
서 남녀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으며 특히, 교육인적

자원부가 1999년에 시작한 제 7차 교육과정은 양성평등적 교육과정을 기초로 조화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게 내려온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제도속에서 실질적인 성차별적 교육은 쉽게 제거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불평등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김옥순, 2000).

현재 제도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현황을 보면, 통합교과로써 기술이나 가정과목이 남녀학생에게 공통으로 교육되어 양성적 인간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과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전통 성역할 분업의식적 관점에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성은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역할로 구분짓거나, 남성은 생산자, 여성은 소비자로 그 성별을 규정하며 역사 속의 인물 중 여성은 극히 소수만 소개하는 등 성별 분리적 입장이 많이 나타나 있다(왕석순, 1999). 이러한 관점은 여학생에게 매우 차별적일 뿐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여 남녀 모두에게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남·여학생 모두에게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지향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 교육이 제도교육 속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한 교육이란 일체의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 교육적 활동을 배제하며 특정 성(性)에게만 제공되던 교육의 기회를 양성 모두에게 제공하여 성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전인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양성평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보다 융통성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가치판단이 확고해지고 높은 자유의지로써 삶을 계획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갇혀있는 사람들보다 지능과 창의력이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추게 되므로 인류사회 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여성정책담당관실, 2001).

이러한 양성평등적 사고는 짧은 기간의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에서의 부모와 제도권 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사, 사회·문화적인 제반 환경이 종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확립하여야 비로소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와 행동규범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전 사회가 함께 양성평등적 사고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교육과 초등교육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초등 교육시기의 아동은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많은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되며, 가정에서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온 생각과 행동들이 전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이를 직접 교정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이므로 양성평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된다 (Witt, 1997). 특히, 5·6학년은 청소년기 초기로, 남녀간의 성격(性的) 신체변화를 처음 경험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최초의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학습되는 양성 평등적 사고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성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Barnett, 1997).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이 숭배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으로부터의 영향이 지대한 시점으로, 이 시기에 잘 준비된 교사의 적절한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과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정해숙과 김연(2002)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의식은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사 -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학생의 정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장순아, 2002). 그러나 초등교사들의 성 정체감, 양성평등의식 수준 역시 전통적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성차별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남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교육하기에 그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이 양성평등의식과 거리가 있는 성차별적 사고를 한다거나, 그릇된 행동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김옥순, 2000). 또한 교과내용에 상관없이 교육자의 양성평

등의식이 학습자인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학습 이전에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보면,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이호숙, 2003; 윤영옥, 2002; 김아영, 199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아동의 성장발달정도가 과거보다 빠르게 상승되어 청소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청소년 초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Cohen 등 (2002)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초기에 그 방향을 잘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서울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작위 추출법으로 5·6학년 각 62 학급의 담임교사 전수와 해당 학급에서 각 5명의 학생을 임의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 수를 제한한 것은 본 연구가 교사와 학생간의 양성평등 인식정도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가급적 교사와 학생 수를 비례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대상학생의 표출은 각 학급의 학생수가 25명

에서 48명까지이었으므로 출석부 명단에서 매 6번째 학생을 각각 선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교사의 경우는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다. 교사의 총 응답자수는 124명이었으며, 학생의 총 응답자는 620명이었는데, 그 중 자료로써 불충분한 40부를 제외한 교사 110부, 학생 594부를 분석하여 응답률은 교사가 89%, 학생이 96%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측정한 도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qualitarianism Scale, KGES, 1999)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 평등의식(Korean Gender Equ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 2002)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에게는 문맥 이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검사지를 25년 경력의 초등학교 5·6학년 교사 5명에게 내용을 검증받아 문장을 수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는 생소한 용어인 '당신'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으로 수정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9문항과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묻는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 네 영역에 포함된 여러 활동들을 제시하고 이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지 생각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총 5점 척도 49문항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교사용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7문항과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묻는 가정생활 15문항, 교육생활 15문항, 직업생활 13문항, 사회생활 15문항 등 총 5점 척도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최대 4점에서 최저 1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4점,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1점으로 산정,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인식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학생의 경우 Cronbach's $\alpha=0.79$, 교사의 경우 Cronbach's $\alpha=0.83$ 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 차이는 t-test로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5학년이 49.2%, 6학년이 50.8%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55.2%, 여학생이 44.8%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52.9%이었으며, 대졸 이상은 36%이었고,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 이하가 66.7%, 대졸 이상이 22.4%이었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50.3%이었다. 대상자 중 아버지로부터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6.6%에 불과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성교육 경험은 23.9%로 비교적 아버지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여학생 중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18.7%, 동정을 경험한 남학생이 5.5%로 여학생의 생리적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표 1).

2) 초등교사의 일반적 특성

남교사가 17.3%, 여교사가 82.7%이었으며 연령은 35세 이상인 군이 그 이하인 군보다 약간 높아 51.8%이었다. 또한 5학년 담임교사가 33.6%, 6학년 담임교사가 66.4%를 차지하였으며 기혼자가 80%, 미혼자가 20%이었다. 교직경력은 10년 이상이

54.5%이었으며 학력정도는 학사가 78.2%, 석사 이상이 21.8%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5.5%이었다(표 2).

2.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도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총 문항 수가 초등학생과 교사가 서로 달라 총점을 비교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각 문항별 평균평점으로 비교하였다. 최대 평균평점 4점에서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는 2.53 ± 0.25 점이었으며, 교사의 인식도는 2.56 ± 0.17 점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각 영역별

표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n=594)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
학년	5	292	49.2
	6	302	50.8
성별	남자	328	55.2
	여자	266	44.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314	52.9
	대졸 이상	214	36.0
	무응답	66	11.1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396	66.7
	대졸 이상	133	22.4
	무응답	65	10.9
성교육 경험(부)	예	39	6.6
	아니오	530	89.2
	무응답	25	4.2
성교육 경험(모)	예	142	23.9
	아니오	424	71.4
	무응답	28	4.7
어머니 직업	직장인	299	50.3
	주부	248	41.7
	무응답	47	8.0
월경경험	예	50	18.7
	아니오	216	81.3
동정경험	예	18	5.5
	아니오	310	94.5

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가정생활($t=-4.54$, $p<0.001$)과 사회생활($t=-5.03$, $p<0.001$)은 각각 교사의 평균평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의 인식도가 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4.49$, $p<0.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도와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학년에 있어 5학년이 6학년보다 교육생활에 있어 양성평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2. 초등교사의 일반적 특성
(n=110)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
성별	남	19	17.3
	여	91	82.7
연령	35세 미만	53	48.2
	35세 이상	57	51.8
담임학년	5학년	37	33.6
	6학년	73	66.4
결혼	기혼	88	80.0
	미혼	22	20.0
교직경력	10년 미만	50	45.5
	10년 이상	60	54.5
학력	학사	86	78.2
	석사	24	21.8
종교	유	72	65.5
	무	38	34.5

표 3.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도 비교

변수	하부영역	초등학생(n=594)		교사(n=110)		t
		평균평점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양성평등	가정생활	2.54	0.29	2.67	0.28	-4.54***
	학교생활	2.59	0.35	2.43	0.35	4.49***
	직업생활	2.48	0.33	2.52	0.37	-1.01
	사회생활	2.47	0.43	2.61	0.22	-5.03***
	전체	2.53	0.25	2.56	0.17	1.91

*** $p<0.001$

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t=2.56$, $p<0.01$) 성별에 있어 여학생은 교육생활($t=-7.93$, $p<0.01$)과 직업 생활($t=-9.11$, $p<0.01$), 사회생활($t=-9.28$, $p<0.01$)에 있어 남학생보다 각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교육생활 부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t=2.30$, $p<0.05$),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직업생활($t=-3.44$, $p<0.01$)과 사회생활($t=-3.77$, $p<0.01$) 영역에 있어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정경험이 없는 남학생의 경우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가정생활($t=-2.60$, $p<0.01$)과 직업생활 영역($t=-2.52$, $p<0.05$) 양성평등의식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교사의 양성평등 인식도

초등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도와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교사들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종교, 담임학년, 경력 등을 비교한 결과 종교가 없는 교사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t=-3.29$, $p<0.01$).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

(n=594)

변수	구분	가정 생활			교육 생활			직업 생활			사회 생활		
		Mean	SD	t or F									
학년	5	2.55	0.29	1.74	2.63	0.36	2.56**	2.49	0.31	0.65	2.51	0.43	1.91
	6	2.52	0.27		2.56	0.35		2.47	0.35		2.44	0.44	
성별	남자	2.51	0.27	1.64	2.47	0.28	-7.93**	2.36	0.26	-9.11**	2.30	0.39	-9.28**
	여자	2.55	0.30		2.69	0.38		2.59	0.35		2.61	0.42	
부 학력	고졸 이하	2.51	0.35	0.36	2.58	0.36	1.31	2.56	0.41	0.722	2.56	0.47	1.02
	대졸 이상	2.56	0.29		2.61	0.35		2.49	0.36		2.45	0.43	
모 학력	고졸 이하	2.56	0.31	0.30	2.69	0.35	1.04	2.48	0.35	0.08	2.44	0.38	0.282
	대졸 이상	2.54	0.29		2.59	0.36		2.48	0.35		2.47	0.45	
성교육 경험 (부)	예	2.57	0.32	0.73	2.73	0.33	2.30*	2.48	0.30	-0.11	2.57	0.35	1.39
	아니오	2.53	0.28		2.59	0.36		2.49	0.34		2.46	0.45	
성교육 경험 (모)	예	2.52	0.28	-0.51	2.57	0.32	-0.99	2.41	0.29	-3.44**	2.35	0.39	-3.77**
	아니오	2.54	0.29		2.60	0.37		2.51	0.35		2.51	0.45	
어머니 직업	작장인	2.54	0.29	-0.52	2.59	0.35	-0.69	2.49	0.33	0.60	2.48	0.43	0.41
	주부	2.54	0.29		2.61	0.37		2.47	0.35		2.46	0.44	
월경 경험	예	2.52	0.25	0.13	2.52	0.30	1.27	2.40	0.33	1.30	2.29	0.43	-0.17
	아니오	2.51	0.27		2.47	0.28		2.35	0.24		2.30	0.39	
봉정 경험	예	2.38	0.23	-2.60**	2.53	0.41	-1.88	2.38	0.37	-2.52*	2.45	0.29	-1.75
	아니오	2.70	0.30		2.70	0.38		2.60	0.35		2.63	0.43	

*p<0.05, **p<0.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도

(n=110)

변수	구분	가정 생활			교육 생활			직업 생활			사회 생활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성별	남	2.65	0.21	-0.26	2.50	0.42	0.99	2.46	0.33	-0.76	2.66	0.25	0.96
	여	2.67	0.29		2.41	0.33		2.53	0.38		2.60	0.22	
연령	35세 미만	2.56	0.27	-0.61	2.38	0.32	-1.58	2.52	0.35	-0.01	2.64	0.24	0.97
	35세 이상	2.69	0.28		2.48	0.37		2.53	0.40		2.60	0.21	
결혼 여부	기혼	2.69	0.28	1.35	2.43	0.35	0.12	2.51	0.38	-0.59	2.60	0.23	-1.65
	미혼	2.60	0.24		2.42	0.34		2.56	0.33		2.68	0.19	
학력	학사	2.69	0.29	1.38	2.40	0.35	-1.51	2.52	0.39	-0.06	2.61	0.24	-0.32
	석사 이상	2.60	0.21		2.52	0.37		2.53	0.31		2.63	0.16	
종교	유	2.56	0.28	-3.29**	2.41	0.32	-0.51	2.56	0.37	0.78	2.63	0.26	0.41
	무	2.73	0.25		2.44	0.37		2.50	0.37		2.61	0.21	
담임	5학년	2.71	0.22	1.05	2.38	0.32	-1.10	2.61	0.31	1.88	2.66	0.24	1.42
	6학년	2.65	0.30		2.45	0.36		2.47	0.39		2.59	0.21	
교직 경력	10년 미만	2.65	0.28	-0.82	2.38	0.32	-1.16	2.52	0.34	0.01	2.63	0.24	0.85
	10년 이상	2.69	0.28		2.46	0.37		2.53	0.40		2.60	0.21	

**p<0.01

고찰

본 연구는 성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이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과 교사와의 양성평등 인식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은 교육영역에서 교사에 비해 높았으며, 가정영역과 사회영역에서는 그 인식이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양성평등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가정과 사회속에서는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생의 성태도를 조사한 장순아(200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성태도가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서로 다름을 지적하였는데, 학생들의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확립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오희숙(2002)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처럼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교사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교육영역에서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을 교육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스스로 양성평등 인식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지만 학생들이 평가한 결과는 교사들이 양성평등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김아영(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초등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남녀 학생에게 다르게 보상과 치벌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윤영란, 1992)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민무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초·중등교사의 성 역할에 따른 편견이 학생들의 정의적 빌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들은 교사의 성별을 통

한 역할구분이나 활동범위, 교육적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등(Cohen 등, 2002), 교사들은 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의 준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윤영옥(2002)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는 1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대부분 직무교육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질과 양에 있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추후 교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종교를 가진 교사가 종교를 갖지 않은 교사보다 양성평등 인식이 낮았는데,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종교를 가진 경우 양성평등 인식이 보다 높다고 한 연구(이호숙, 2003)와 상반되었다. 따라서 교사에게 있어 종교와 양성평등 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성적(性的) 역할인식에 대해 보다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낮은 양성평등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자료집(1999)에서 여학생의 양성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고 한 보고와도 일치하며, 이호숙(200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Lieben과 Bigler (2002)가 미국의 6·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성의식에서도 여성적 견해가 강한 남학생이 보다 평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이미 초등학교 남학생에게도 성별 이중적 기준이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남학생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 동정을 경험한 남학생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부분에서 이를 경험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점수가 낮았다. 남학생에게 있어 동정경

험은 스스로 남성성을 느끼는 첫 신체적 경험으로써, 여성과 다른 분명한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확연하게 성 구별적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아동들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고(Grant & Demetriou, 1988),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과 정보는 대부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상업적 성 관련자료, 선전물 등을 통해 충족되는 상황이다. 이는 왜곡된 성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Escobar 등 (2005)은 청소년의 성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하며, 이런 시기에 성 정체감이 잘 확립된 청소년은 대중매체에 의한 악영향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남학생의 경우 동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 시기에 양성평등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성주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아버지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서 양성평등 인식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성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오희숙(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Fisher (1990)와 하재경(2001) 역시 청소년의 성 태도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춘기 학생의 경우 성생활을 절제한다는 연구 (Mueller & Powers 1990)도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직업영역과 사회영역에서 양성 평등 인식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어머니 성교육이 주로 가부장적 제도속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성역할에 대한 강조와 특히 여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도되는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순결교육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성평등 인식이 선행되어야 자녀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와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Grant 등, 1988), 부모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보다 교육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담임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생 594명과 담임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교사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도구를, 학생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5학년이 49.2%, 6학년이 50.8%이었으며 남학생이 55.2%, 여학생이 44.8%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각각 많았으며,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23.9%, 아버지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은 6.6%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상자 중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18.7%, 동정을 경험한 남학생이 5.5%로 여학생의 생리적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경우 남교사가 17.3%, 여교사가 82.7%이었으며 연령은 35세 이상이 51.8%, 교직경력은 10년 이상이 54.5%, 학력정도는 학사가 78.2%, 종교가 있는 경우가 65.5%이었다.

초등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역별로 보았을 때,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인식 정도가 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교사의 평균평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 여학생

의 양성평등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으며, 아버지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생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았고,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영역과 사회영역에서 그 점수가 낮았으며, 동경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가정 영역과 직업영역에서 각각 양성평등 인식이 낮은 것으로 규명되었다. 교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양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생과 교사간의 양성평등 인식이 성장발달정도와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적 환경에 의해 양성평등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부모의 성교육 역시 양성평등 인식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 인식정도가 다르며, 특히 남학생에게 있어 동정이라는 신체적 변화는 양성평등 인식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남학생의 양성평등 교육은 특히 이 시기를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측면에서도 교육영역에서 보인 낮은 양성평등 인식은 앞으로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제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여러 결과는 양성평등 인식확립에 있어 교육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 남·여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에게는 동정이전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부모의 성교육과 자녀들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는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양성평등교육과 함께 부모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초등교사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강화하여, 성별 차이가 없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육성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1999
- 김옥순. 초등학교에서의 성차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아영.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민무숙. 여교사의 학교행정과·교육전문직 진출 촉진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여성정책담당관실.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오희숙. 가정연계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왕석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 윤영란. 국민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윤영옥.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인식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호숙.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실태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순아. 양성평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혜숙, 김연.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연구요약 i-iv, 2002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1999:250-254
-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형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2002:250-255
- 허재경.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Barnett B. Gender norms affect adolescents. Network 1997;17(3):10-13
- Cohen DA, Farely TA, Taylor SN, Martin DH, Schuster MA. When and where do youths have sex? The potential role of adult supervision. Pediatrics 2002;110(6):66
- Escobar SL, Tortolero SR, Markham CM, Low BJ, Eitel P, Thickstun P. Impact of the media o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Pediatrics 2005;116(1):303-326
- Fisher TD. Characteristics of mother and father

- who talk to their adolescent children about sex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990;3(1):53–57
- Grant LM, Demetriou E. Adolescent sexuality. *Pediatr Clin North Am* 1988;35(6):1271–1289
- Lieben LS, Bigler RS.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tructs and pathways. *Monogr Soc Res Child Dev* 2002;67(2):discus-
- sion 148–183
- Mueller KE, Powers WG. Parent-child sexual discussion: perceived communicator style and subsequent behavior. *Adolescence* 1990;25(98): 469–482
- Witt SD.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ization to gender roles. *Adolescence* 1997;32 (126):253–258